

2022년 05월 0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요한복음 13장 34~3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38(통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베소서 2장 13절(신약p.311)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 말씀선포 / 성찬의 깊은 의미

코로나19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바꾸었고 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찬 예식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제약은 풀리고 오늘 감격스러운 성찬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지난주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일꾼 장로님 두 분, 안수집사님 두 분, 그리고 권사님 세 분을 피택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다시 한 번 부흥을 꿈꾸며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47년간 많은 일들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말씀의 복을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귀한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까워졌느니라.”는 헬라어는 “엔귀스”인데, 이 뜻은 “최고로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거리로 최단거리요, 관계로도 최고로 가까운 혈연관계이며, 시간적으로도 바로 직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천국과 가까워진 자들이요, 예수의 몸 된 지체이며, 성도와 성도는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 그리스도인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며 바른 성도, 참된 성도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방법 중 하나가 온전한 성찬에 참여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받는 거룩한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지킴으로 우리는 참된 성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 무엇보다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 합니다. 성경은 십자가 구속의 사건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사도와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설교로 증거 합니다. 오직 말과 글로 표현 된 사실을 성찬예식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직접 참여하고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기에 고대에 ‘어거스틴’ 이나 ‘칼빈’ 은 성찬 예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말씀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신령한 성령의 역사와 풍성한 은혜를 더욱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으로 성도는 이 거룩한 예식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먼저, 나 자신의 죄악 된 모습을 회개하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더욱 의롭게 하시고,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성도의 삶을 더욱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떡과 포도주를 나눔

- 무엇보다 성도는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은 우리들의 죄 성이 무너지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에 묻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안에 찾아 올 수 있도록 세상 것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 했습니다. 참으로 성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이요, 죽기 까지 순종하시는 순종의 마음이며, 원수도 사랑하며, 죽을 죄인도 사랑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또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며 섬기며 은혜를 나누는 인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 더 나아가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합을 결집하는 행위며 형제가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시 한 번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은혜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귀를 가지며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주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심을 알아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중보자요, 버팀목이 되고, 참으로 어려운 자의 힘이요, 고통당하는 자의 격려자이며,
슬픔을 당한 자의 위로요, 낙심자의 기쁨이 되어 참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이러한 성찬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남기신 명령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규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성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큰 은혜의 축복이 성도의 삶에 임하기 때문이요, 주님 오실 그
때까지 성도가 은혜를 지켜 살아가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을 행하며 모든
성도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찬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의 삶 속에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을 행하며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은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연합하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연합함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을 고침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620 여기에 모인 우리

◎ 폐 회 / 주기도문